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작성부서 : 국제거시팀
작 성 일 : 2014년 12월 17일
작 성 자 : 김수빈 연구원
전 화 : 044-414-1228
연 락 처 : 044-414-1228

I. 개 요

1. **일시** : 2014. 12. 05. (10:00~12:00)

2. **장소** : KIEP 11층 회의실

3. **발표자** : 원도연 외교부 과장

4. **참석자**

김소영(서울대, 교수)
김인철(성균관대, 교수)
김정식(연세대, 교수)
김태준(동덕여대, 교수)
박영준(아주대, 교수)
송치영(국민대, 교수)
이영섭(서울대, 교수)
채희율(경기대, 교수)
최지영(기획재정부, 서기관)
이일형(KIEP, 원장)
윤덕룡(KIEP, 선임연구위원)
이상미(KIEP, 전문연구원)
김수빈(KIEP, 연구원)

5. **제 목**

- G20브리즈번 정상회의 브리핑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**발제내용**

□ 먼저 원장님의 2014년 정상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음.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고,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었음.

- 올해의 정상회의는 각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의견조율이 다소 부진하였음.

- 그러나 Sherpa 회의 때 논의된 사안이 정상회의에서 동일하게 논의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음.

□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한 금년 G20 정상회의의 대주제는 1) 세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2)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3)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 강화였음.

- '제1세션. 세계경제(성장과 일자리 창출)'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, 고용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.

  *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'G20 종합적 성장전략' 마련에 합의하고, 박 대통령이 제안한 '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'이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
  *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, 유럽 디플레 우려, 신흥국 성장동력 약화 등을 세계경제 하방위험으로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G20 정책 공조를 강조함.
  *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, 민간투자 등을 유인하기 위해 Global Infrastructure Hub를 설립하고,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

'leading practices'를 마련

* 시장 경쟁 강화, 반독점법의 효율적 집행,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강조하고, '고용계획(Employment plan)'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당부

- '제2세션. 세계경제 회복력'에서는 금융 시스템 강화, 국제 조세 시스템 및 IMF 개혁 등을 논의

* '대마불사' 해결 방안, BEPS 액션플랜,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및 이행계획 등을 마련
* 2010년 IMF 개혁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 지연으로 후속 쿼타 검토의 완료 시한도 1년 연장

- '제3세션. 에너지'에서는 에너지 협력 증진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, 기후변화 대처방안 등을 논의

* 국제 에너지시장 개선, 가스시장 안정성 확보,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G20 차원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
* 기후변화협약 협상의 중요성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UNFCC, 2015년 개최 예정)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필요성 확인

□ 의장국인 호주는 위의 3대 핵심주제를 위주로 간결한 정상회의 선언문(안)을 채택하였음.

- 투자, 경쟁, 고용,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선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잠재성장을 견인해야 함.

* 5년 뒤 G20 전체 GDP를 현 추세보다 2% 이상 추가 상승을 목표로 설정하고,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수요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병행하기로 함.

- 위기 재발과 국가간 정책 차이를 이용한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금융·조세 관련 제도 및 관행을 국제적으로 조율하기로 함.

- IMF 구조 개혁, WTO 체제 강화 및 발리 합의사항 이행, UN 기후변화 협약 이행, 에너지 시장 강화를 위한 원칙 마련 등 국제협력이 긴요한 분야의 미래지향적 정책공조 시도와 이에 대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지지를 천명

2) 토론 내용

□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, 일부 신흥국의 환율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짐.

-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저유가 현상, 선진국 통화정책, 유로지역 경기 회복 부진 등을 둘러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임.

- 신흥국은 국제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국제통화국과 환율제도 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음.

- 교환성통화국과 비교환성통화국간 환율 공조가 필요함.

□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상태임.

- 또한 성장, 일자리 창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일정한 소득수준하에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

□ 내년 의장국인 터키의 아젠다 수립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터키가 강조해온 주요의제(무역, 글로벌 거버넌스 등)에 대해 워킹그룹 선도, 국제기구와의 협동연구 등을 제안하는 방안이 있음.

□ 창조경제의 전파를 위해서는 인력과 자본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며

젊은 인력의 국가간 이동, 벤처자본의 대(對)신흥국 투자, 모범 사례 공유 등이 필요함.

- 창조경제 전파에 있어 G20 국가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, 비교 분석을 통해 자국 현황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.

- 창조성이 중요한 ICT 분야를 향후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.